



Time Chaser

포트폴리오

김소현



tonightornever1016@naver.com



010-4617-8465



https://doris444.github.io/_Portfolio/

목차

01

자기소개

1. 자기소개
2. 사용 툴 / 언어 숙련도
3. 프로젝트 목록

02

Time Chaser

1. 시놉시스
2. 캐릭터 설정
3. 기/승/전/결

03

시나리오

1. 튜토리얼 대사
2. 메인 스토리 시나리오

✓ 자기소개



다양한 분야를 주도한 실전형 기획자 김소현입니다.

저는 아이디어를 실제 게임으로 구현하는 올라운더 기획자입니다.
프로젝트마다 메인 기획자로 참여해 시나리오부터 시스템, 레벨디자인,
UI/UX까지 직접 담당한 경험이 있습니다.

✓ 학력

학교	학과	전공	기간
호서대학교	게임소프트웨어학과	-	2024.03 ~ 현재
백석문화대학교	컴퓨터정보학부	컴퓨터게임	2022.03 ~ 2024.02
청수고등학교	-	-	2019.03 ~ 2022.02

✓ 스킬

툴

Unity



중

Figma



상

Excel



중

Power Point



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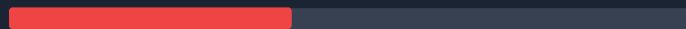
Word



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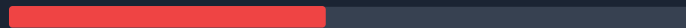
언어

C / C++ / C#



하

JavaScript



하

Python



중

SQL



중

HTML / CS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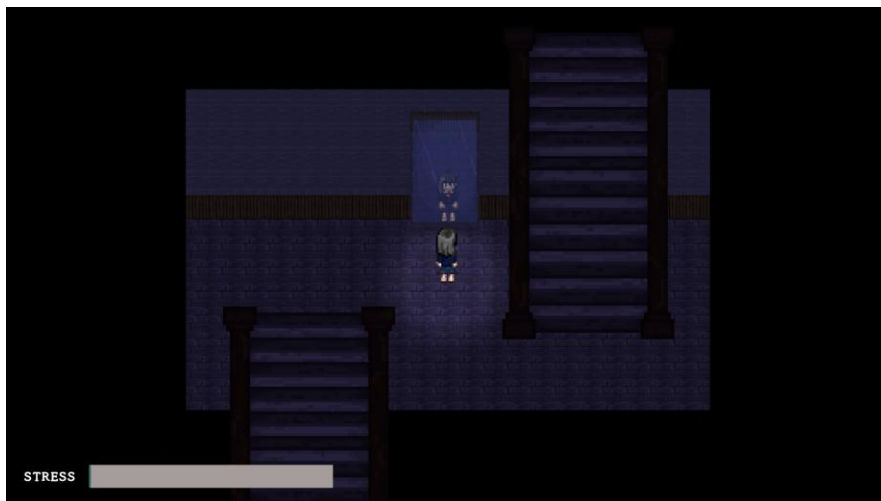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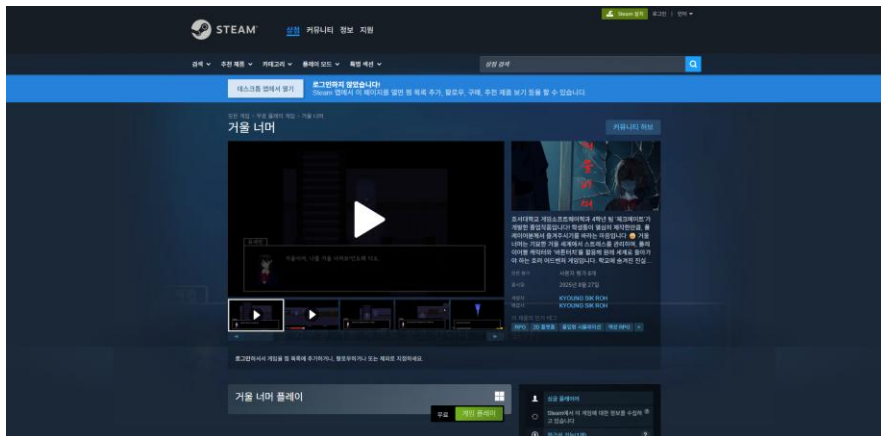


중

✓ 프로젝트

프로젝트 명	역할	기간	비고
거울 너머	메인 기획자 시나리오, 시스템 기획, 레벨 디자인, 아이템 기획, 퍼즐, UI/UX 디자인, QA, PM, 일 부 그래픽	2025.04 ~ 현재	졸업프로젝트, 게임 출시
마녀 과자가게	메인 기획자 시스템 기획, 레벨 디자인, UI/UX 디자인, QA, PM, 일부 그래픽	2025.04 ~ 2025.05	6주 프로젝트, 캡스톤디자인 과목

✓ 거울 너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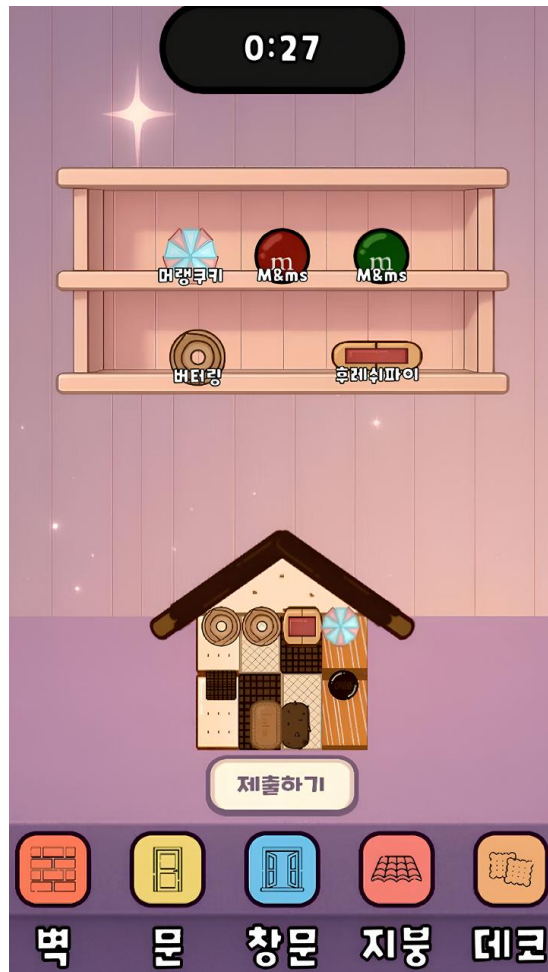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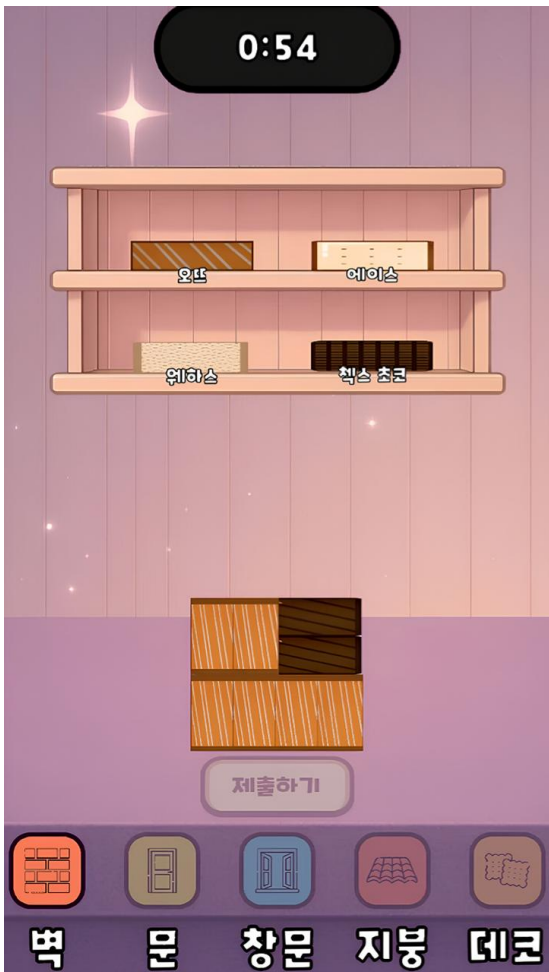
개발 중 겪은 어려운 점

- 세이브 버그로 정상적인 엔딩 확인 불가
- 정보 부족으로 진행 방향이 불명확
- 자동 회복 수단이 없어 자유도 저하
- 지도 부재로 인해 탐색 동선이 불편
- 맵이 넓음
- 세이브 포인트 위치 중복 및 불규칙

해결 방안

- QA 테스트 강화
- 대사 보강 및 시스템을 알려주는 아이템 추가
- 특정 지점에 휴식 시스템 도입 (스트레스 감소 기믹 추가)
- 지도 아이템 추가
- 플레이어 이속 증가
- 규칙적인 세이브 포인트 지정으로 안정적 플레이 흐름 확보

✓ 마녀 과자가게



개발 중 겪은 어려운 점

- 존재하지 않는 완전히 새로운 게임을 만들어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하다 보니 아이디어 구상에 과도한 시간이 소요됨

해결 방안

- 영화, 드라마, 애니메이션, 연극 등 다양한 매체를 참고하며 이야기 구성과 컨셉에 대한 시야를 확장함
- AI를 활용해 아이디어를 시각적으로 검토하며 기획 효율을 높임

Time Chaser

타임머신이 개발된 지 한 달 후,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꾸려는 행동은 불법으로 제정되었다.
사람들의 운명과 선택이 바뀌며, 사회 구조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경찰'이라는 집단이 생겨났다.
좋은 의도라고 해도 현재를 바꾸려는 건 불법이었기에,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해미 순경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미는 경위로 승진해 강력 범죄 수사대로 배치되었다.
오춘배 경찰서장은 해미가 순경 시절에 보여준 활약과 충성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로 돌아가 사이보그 살인 병기를 만들어 현재를 멸망시키려는
집단을 추적해 달라는 의뢰가 해미에게 들어오게 된다.

✓ 튜토리얼 주요 인물



윤해미

여성 | 24세 | 순경

능력: 염화

Time Chaser 작 중 여주인공.
정리적이고 열정적인 성격으로 시간 경찰로서의
임무에 충실하다.



김찬호

남성 | 27세 | 순경

능력: 마취 독

Time Chaser 작 중 해미의 동료 경찰.
평소엔 어리바리한 모습이지만 위험한 상황에선
말 없이 든든한 서포트를 지원한다.



정태우

남성 | 32세 | 순경

능력: 방어막

Time Chaser 작 중 해미의 동료 경찰.
무뚝뚝하고 냉정하지만 누구보다 동료를 아끼고
지켜준다.



최민기

남성 | 29세 | 순경

능력: 순간 가속

Time Chaser 작 중 해미의 동료 경찰.
실적이 없어 월급에만 집착하는 면모를 보여준다.
누가보다 열심히 하지만 이상하게 공을 못 세운다.



오춘배

남성 | 55세 | 경찰서장

능력: 무능력자 보호

Time Chaser 작 중 경찰서장.
해미에겐 온화하지만 그 외에겐 냉정하고
카리스마 넘친다.



진태성

남성 | 42세 | 범인

능력: 강한 오른 의족 다리

Time Chaser 작 중 범인.
사형수가 되어 자신의 범죄 기록을 없애려 과거에 왔지만
해미 일행이 방해하는 모습을 보고 추악한 본성을
드러낸다.

✓ 메인 스토리 주요 인물



윤해미
여성 | 24세 | 경위

능력: 염화

Time Chaser 작 중 여주인공.
시간 경찰이지만 자신이 소중한 사람에겐
한 없이 약해진다.



하론채
여성 | 25세 | 경위

능력: 염력

Time Chaser 작 중 해미의 동료 경찰.
자신에겐 지나치게 감정적이지만 남에겐 이성적이다.
평점심을 잃을 때마다 자신을 제어해주는 하주원을
 짝사랑한다.



하주원
남성 | 28세 | 경위

능력: 자기장

Time Chaser 작 중 해미의 동료 경찰.
말이 거칠고 냉정하다. 항상 동료가 정신 차릴 수 있게
길잡이 역할을 해준다.



박시온
남성 | 27세 | 사이보그

능력: 기억 읽기

Time Chaser 작 중 남주인공.
희귀병으로부터 살기위해 사이보그가 됐지만
정신 지배를 당하는 살인병기가 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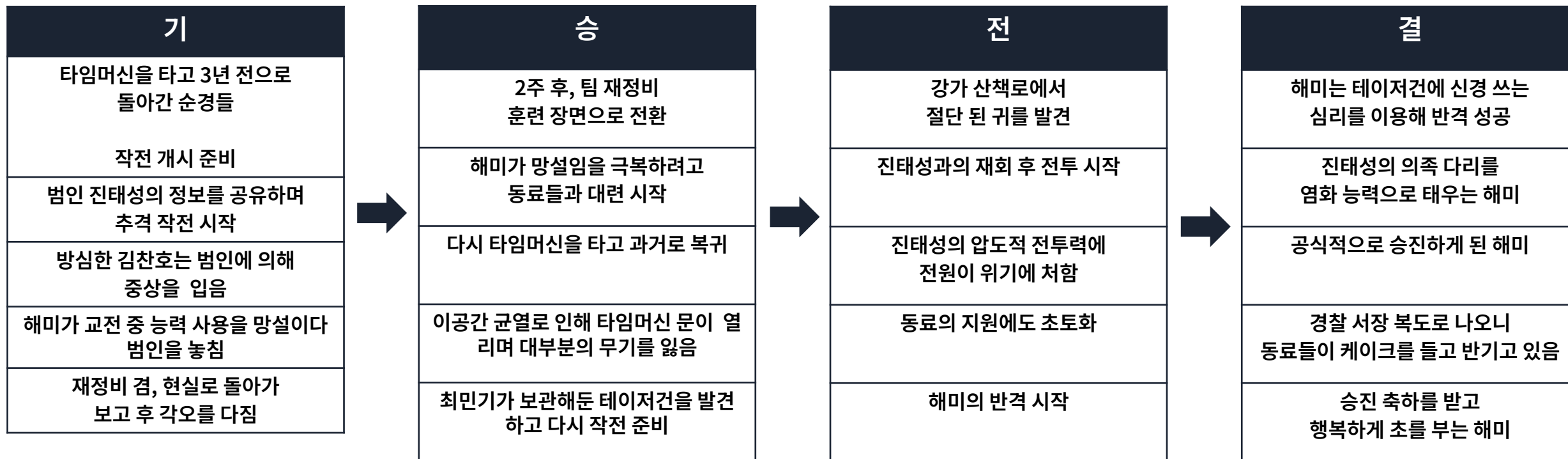


김선우
남성 | 27세 | 경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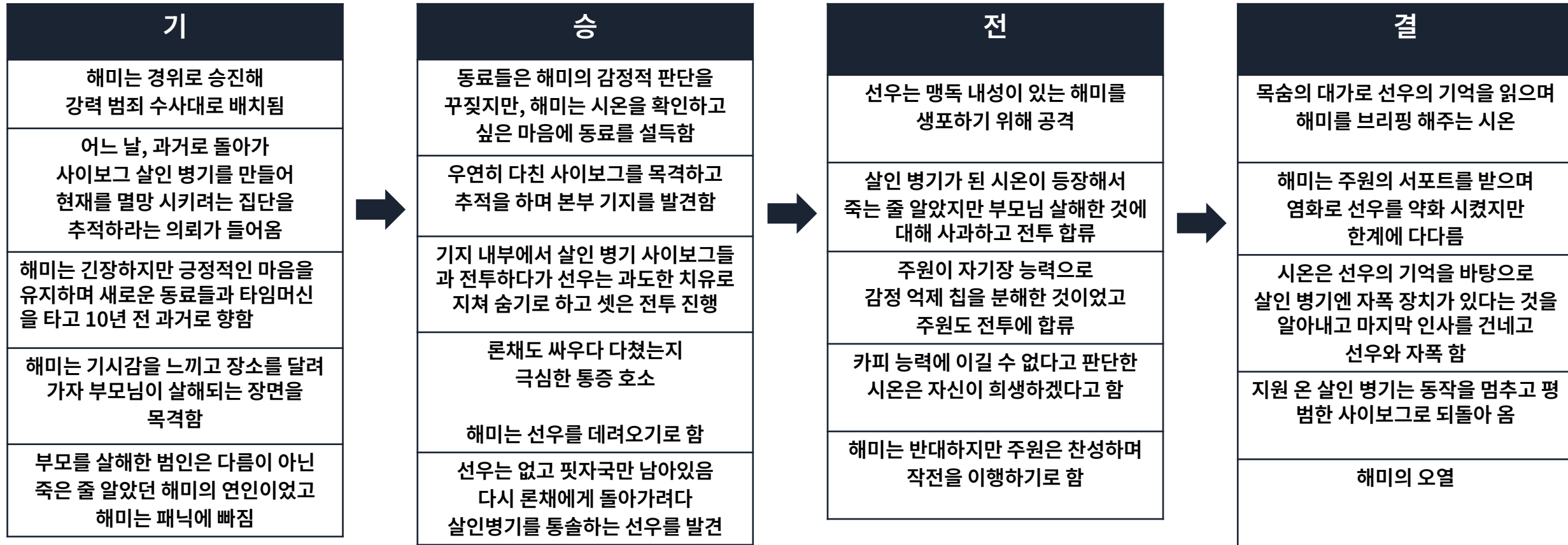
능력: 치유, 독, 카피

Time Chaser 작 중 해미의 동료 경찰이자 흑막.
선하고 다른 사람을 잘 챙기는 성격이었지만
사회에게 버림받아 썩어빠진 사회를 교정하기 위해
기술력이 약한 과거에 돌아가서 세상을 멸망 시키려 한다.

✓ 튜토리얼



✓ 메인 스토리





Time Chaser

문서 버전 : 1.2.0

작성자 : 김소현

시놉시스

타임머신이 개발된 지 한 달 후,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꾸려는 행동은 불법으로 제정되었다.
사람들의 운명과 선택이 바뀌며, 사회 구조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경찰'이라는 집단이 생겨났다.
좋은 의도라고 해도 현재를 바꾸려는 건 불법이었기에,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해미 순경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미는 경위로 승진해 강력 범죄 수사대로 배치되었다.
오춘배 경찰서장은 해미가 순경 시절에 보여준 활약과 충성 덕분이라며,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로 돌아가 사이보그 살인 병기를 만들어 현재를 멸망시키려는
집단을 추적해 달라는 의뢰가 해미에게 들어오게 된다.

튜토리얼 주요 인물

윤해미 : 여, 24, 순경 [능력 : 염화] (주인공)
김찬호 : 남, 27, 순경 [능력 : 마취 독]
정태우 : 남, 32, 순경 [능력 : 방어막]
최민기 : 남, 29, 순경 [능력 : 순간 가속]
오춘배 : 남, 55, 경찰서장 [능력 : 무능력자 보호]
진태성 : 남, 범인 42 [능력 : 강한 오른 의족 다리]

S#1 이공간 (주변마다 시계가 훑날리는 몽환적인 시공간)

타임머신을 타고 3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순경들.

3년 전으로 도착하자 순경들은 한 명씩 타임머신에서 내리기 시작한다.

S#2 3년 전, 큰 길목 (낮)

윤해미 여러분도 알다시피 범인은 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잃었지만, 의족 활용도가 뛰어난 인물이에요.

과거에 육상 선수였기도 하고.... 게다가 사형수네요. 어떻게 보면 저희가 맡은 일 중에 가장 까다로울지도 모르겠네요.

(나레이션) 범인의 위치를 추적하는 시계를 보고 범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해미.

윤해미 (팁- 시계를 닫는다) 이번엔 2명씩 나눠서 추격하죠.

늘 그랬던 것처럼 시계는 김찬호님이 맡아주세요.

김찬호 응 알겠어!

(나레이션) 갑자기 주머니를 뒤적거리는 김찬호.

윤해미 찬호 님 뭐 찾으시는 거 있으세요?

김찬호 어떡하지? 심혈을 기울여 만든 독 마취침을 두고 온 거 같아...

(나레이션) 재 빠르게 상황 판단을 마치고 입을 여는 해미.

윤해미 시간이 없으니, 작전을 바꿔야겠네요. 찬호님은 저와 같이 다니고, 만약 범인과 마주치면 민기님은 순간 가속으로 거리를 좁혀주시면서 압박 넣어주세요. 덤비려고 한다면 태우님이 방어막으로 막아주시고요.

(나레이션) 순경들은 작전대로 2명씩 두 갈래로 갈라져 범인 진태성을 추적하기 시작한다.

S#3 3년 전, 셋길 (낮)

(나레이션) 정태우와 최민기에게 추격당하고 있는 범인 진태성.

진태성 젠장... 저 녀석은 왜 순간적으로 거리를 따라 잡을 듯 말 듯 하는데?! 그래도 이 모퉁이만 돌면 따돌릴 수 있...?

김찬호 (갑작스러운 대면에 놀란다) 앗썬! 깜짝아! 해미님 여기예요 여기!

윤해미 찬호님! 저를 부르는 게 아니라 지원 요청을..!

일단 범인 진태성의 동선을 차단해 두겠습니다!

(나레이션) 해미가 손을 뻗자 시뻘건 불꽃이 진태성의 길을 가로막는다.
불꽃을 보고 멈칫하는 범인 진태성.

김찬호 이제 그만 포기하고 저희와 연행해—

(나레이션)

김찬호의 말이 끝나기 전에 복부에 주먹을 겨누고 강한 오른 의족 다리로 차버리는 범인.

김찬호는 배를 움켜잡고 길가에 쓰러진다.

곧이어 해미에게 직선으로 돌진해 오는 범인 진태성.

오른 의족의 힘이 지나간 곳에 따라 찌적 갈라지는 바닥들.

의족 다리로 발차기가 들어오자 팔 앞으로 교차시켜 방어하는 해미.

강한 다리를 못 버텨낼 거라고 판단한 해미는 몸을 옆으로 비틀어 범인의 어깨를 발로 차고 전투 자세를 다시 잡는다.

윤해미

(여기서 염화 능력을 잘못 쓰면 나도 살인마가 되니... 명치를 노려서 제압을...!)

(나레이션)

진태성의 명치를 노리며 세 차례 연속 공격하는 해미.

하지만 마지막 동작을 크게 한 탓인지 틈이 생겼고 진태성이 발을 걸자 넘어지고 만다.

진태성

아가씨, 놀아드릴 시간 없거든? 그니까 내 길을 방해하지 마.

그리고 누구 죽일까 봐 염화 능력 제대로 못 쓰는 것 같은데, 그런 마음으로 아무도 못잡을 걸? 그럼 갈게?

(나레이션)

유유히 돌아서서 길을 나서는 범인 진태성.

진태성이 순순히 길을 나서는 모습을 지켜볼 수 없던 해미는 범인이 가는 길에 손을 뻗어 불을 지른다.

진태성	(비웃으며) 흐하하하, 고작 이런 거로 날 잡을 수 없다고 애송이!
(나레이션)	진태성은 옆 벽면으로 힘차게 뛰어올라 마치 벽이 길인 것처럼 빠르게 타다다다- 뛰어가 어디론가 사라졌다. 그 모습을 병찐 표정으로 가만히 바라보는 해미. 겨우 돌아온 정신을 붙잡고 진태성에게 당했던 김찬호에게 다가간다.
윤해미	(눈물을 삼키며 김찬호를 흔든다) 찬호님... 찬호님! 정신차리세요!!
(나레이션)	멀리서 소리를 듣고 주인공 일행이 있는 곳으로 지원 온 정태우와 최민기.
정태우	해미님, 찬호님 괜찮으세요?
최민기	찬호님의 상태가 안 좋아 보이는데....
정태우	헉.... 이... 이제 어쩔담?
윤해미	일단... 돌아가서 재정비하고 와야 할 듯 싶습니다. 제가 망설여서 일어난 일입니다. 죄송합니다.
정태우	아닙니다. 저건 범인 잘못된 일이지 해미님 잘못이 아닙니다. 일단 돌아가서 서장님께 보고드립니다.
윤해미	... 네 그럼시다.

최민기 저기 해미님... 팔 다리에 멍들어서 아파 보이는데 괜찮으신 거 맞죠?

윤해미 아~ 이쯤은....

(팔에 있는 멍을 감싸다가 실수로 멍을 눌러버린다) 옥! 아파...!

정태우 그럼 어서 돌아가서 치료부터 받죠.

S#4 현재, 오춘배 경찰서장실 (다음 날 아침)

윤해미 (긴장한 채 고개를 푹 숙이며) 그리해서... 끝내 범인을 잡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오춘배 괜찮을세.

윤해미 (당황한 채 고개를 들어올린다) ...예?

오춘배 저 범인은 전과범 기록이 꽤 있는데 그때도 잡을 때 꽤 애먹었다지.
능력자라 해도 저런 놈은 쉽지 않지.

윤해미 (손을 꼼지락 거리며) 저...

오춘배 이 사건을 다른 팀에게 넘길 생각 없으니 걱정하지 말게나.

윤해미	(고개를 들며) 네...? 그걸 어떻게.....
오춘배	<p>이제 곧 경위로 올라갈 때가 되지 않았는가? 이럴수록 예민해지는 게 사람이지.</p> <p>원래 말해주면 안 되는 거다만... 이 사건만 마무리 지으면 해미양은 이제 경위가 될거세.</p> <p>자네 멍과 찬호가 괜찮아지면 다시 사건을 마무리 해줄 수 있겠나?</p>
윤해미	(애써 나오는 눈물을 삼킨다)알겠습니다...
오춘배	이번에도 활약 기대하겠네.
윤해미	(각오를 다진 눈빛) 기대에 꼭 부응하겠습니다.

(페이드 아웃 후 2주 후로 넘어간다.)

S#5 대련실 (낮)

윤해미	(일행에게 다가선다) 다들 여기 계셨네요? 찬호님은 괜찮아지셨나요?
김찬호	<p>네~ 다행히 옆구리 쪽에 맞아서 목숨엔 지장 없고 타박상 정도예요.</p> <p>이제 충분히 걷고 뛸 수 있을 정도라니까요?!</p>
윤해미	(주저 앉는다) 하아 다행이다...

김찬호	해미님의 걱정도 받고 영광이네요~
윤해미	(쿵쿵 웃으며) 찬호님은 여전하시네요.
김찬호	해미님은 괜찮아진 거 맞으시죠?
윤해미	(눈을 피하며) 네에... 나름.
정태우	(짜릿) 나름이요?
윤해미	다 안 나왔지만 이대로 지체할 수 없는 일이기도 하니까요.
최민기	그쵸. 이제 슬슬 일해야죠. 우리 범인 잡기 전까지 서장님이 월급이 끊는 땀... 읊!

최민기의 입을 틀어막는 정태우.

정태우	하하... 민기님의 말은 무시해주세요.
윤해미	아니예요. 틀린 말도 아니니까요... (말을 마치고 머뭇거린다).
정태우	해미 님, 더 하실 말씀이라도?
윤해미 부탁드립니다 싶은 게 있는데 모두 저랑 대련해 주실 수 있나요? 범인을 잡아야 하기도하고... (자기 손을 바라보며) 능력을 제대로 활용

정태우

못 해서 범인을 놓친 제 자신이 너무 분해요. 그니까 저랑 같이 수련해주셨으면 해요...!

원거리와 근거리 공격법을 익혀서 이번에는말로 잡아 보이겠습니다!

(나레이션)

초능력을 쓰며 모두 해미에게 공격을 시작해온다.

FO FI

S#5 이공간 (주변마다 시계가 훑날리는 몽환적인 시공간)

(나레이션)

타임머신을 타고 다시 범인을 잡으러 3년 전 과거로 돌아가는 순경들.

챙겨 온 무기로 어떻게 전략을 짤지 바닥에 나열해 놓고 회의 중인 해미 일행들.

갑자기 이공간에 균열이 생겼는지 덜컥거리기 시작하는 타임머신.

곧이어 타임머신은 문짝이 뜯어나가고 챙겨왔던 권총, 테이저건이 문 밖으로 나가 이공간으로 떨어져 버린다.

김찬호

안돼!!! 무기가...

최민기

이걸 어찌죠... 곤란하게 됐네요.

윤해미

어쩔 수 없이 맨몸으로 싸워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이공간에서 떨어지지 않게 다들 중심 잘 잡고 있습니다!
(나레이션)	타임머신 조작장치 근처에서 무언가 열심히 뒤적거리는 최민기.
윤해미	민기 님 위험하게 뭐하는 짓이에요?!
최민기	(활짝 웃으며) 아 찾았다! 전에 수명 별로 안 남은 테이저건 처리하기 귀찮아서 여기에 킁겨뒀었거든요.
김찬호	엥? 저게 테이저건이었어요?! 너무 자연스러워서 몰랐네요.
최민기	하하. 그럴만하죠. (테이저건을 내민다) 이건 해미님이 맡아주세요. 아마도 한 번정도만 사용 가능할거 같으니.
윤해미	아... 넵!
(나레이션)	타임머신이 쿵-하고 내려앉으며 어디선가 착지한다.
정태우	휴~ 다행히 과거로 잘 도착한 거 같네요

S#6 3년 전, 강가 산책로

(나레이션)	3년 전으로 도착하자 타임머신에서 내리는 해미 일행.
윤해미	찬호 님, 위치 추적 시계 한번 체크해주시겠어요?

김찬호	네, 당연하죠! (시계를 연다)
정태우	같은 위치에 머물러 있는지 움직임은 없는 상태네요.
최민기	음... 쫓기는 입장에서 저리 한가하게 있더라? 좀 이상한데.
정태우	(시계 가리키며) 그래도 위치는 확실할 텐데요. 과거로 가서 무슨 짓을 할지 몰라 오른쪽 귀에 위치 추적기를 심어야 하는 게 기본법으로 제정되었으니까요.
최민기	설마 귀를 절단해서 위치 가만히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 아니겠조?
김찬호	그렇게 간 큰 놈은 아니겠조~ 설마 그런 끔찍한 짓을 벌이겠어요?
윤해미	어...?
정태우	해미님 왜 그러세요?
윤해미	(산책로를 가르키며)저거... 산책로에 있는 거 사람 귀 아니에요?
최민기	일단 가까이 가볼까요?
(나레이션)	귀로 추정되는 곳으로 가까이 향하는 해미 일행들.
김찬호	헉.? 진짜 귀인덱쇼?

윤해미 (쭈그러 앉으며 귀를 살핀다) 절단된 거 치곤 너무 깔끔하게 절단되어 있어...

(나레이션) 어디선가 풍겨오는 살기를 느낀 해미.

윤해미 다들 위에서 내려오는 거 피해요!!

(나레이션) 쿵- 하고 범인이 착지하자 길에 금이 가고 강가의 물이 튀긴다.

진태성 기어코 다시 찾아왔구나? 애송이들. 분명 내 길을 막지 말라고 했을 텐데?

윤해미 귀까지 절단하고... 대체 목적이 뭐죠?

진태성 목적? 간단해. 내가 저질렀던 기록을 지우려고 온 거지.
그래야 현재로 돌아가면 석 달 뒤, 사형을 면할 수 있을 테니 말이야.
그런데... 처리해야 할 게 생각보다 많더라.
혹시나 해서 귀는 잘라놨 미끼를 깔아뒀는데— 정말 다시 쫓아올 줄은 몰랐네.

또 방해하러 찾아오면 죽여줄까 했는데, 제 발로 찾아들 오셨네~?

그럼 죽어야겠지?

윤해미 아뇨. 이번엔 얌전히...! 연행해 주시죠!

(나레이션) 선두로 달려드는 해미.

전신의 탄력을 모아 강하게 뛰어올라 범인의 안면을 향해 니킥을 날린다

재빠르게 반응해 해미의 다리를 공중에서 낚아채 허공으로 내던지는 범인 진태성.

중심을 잃고 바닥으로 떨어지지만, 자세를 바꿔 두 손을 짚고 착지에 성공하는 해미.

후방에서 나타나 마취총을 겨누려는 김찬호.

김찬호의 마취총을 들고 있는 손목을 손으로 탁- 쳐서 마취총을 떨어지게 만드는 데 성공한 범인.

김찬호가 당황한 틈을 타 복부 2연타를 가격하는 범인.

진태성의 주먹에 바닥에 쓰러지는 김찬호.

김찬호가 쓰러지자, 정태우와 최민기가 좌우로 도약해 기습 마취총 공격을 시도.

짐승 같은 감으로 알아챈 범인 진태성은 반 바퀴 회전 후 오른쪽 의족 다리로 정태우와 최민기의 복부를 타격.

강한 충격 탓에 몸이 붕 뜨다 마취총과 함께 강가에 빠져버리는 정태우와 최민기.

그 틈을 타 낮은 자세로 접근하는 해미

이번엔 팔꿈치를 앞세워 진태성의 명치를 노린다.

몸을 옆으로 피해 공격을 피하고 해미에게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진태성.

진태성은 넘어진 해미의 머리채를 잡아 올린다.

윤해미

(분한 표정을 지으며) 크윽...!

진태성

(비웃음) 하하. 시간 경찰도 별거 아니었네. 능력자 4명을 붙여도 나 하나 못 잡는 거 보니.

그리고 말이야. 인력이 부족하긴 한가 봐? 며칠 동안 아무도 안 오다가 너희를 또 오는 것 보니.

(나레이션)	정신을 차린 김찬호는 오른쪽 의족 다리에 마취총 여러 발 겨눈다.
윤해미	마취총이 통하지 않아...?
진태성	<p>(마취 바늘을 뽑아낸다) 응? 이게 뭐야?</p> <p>뭐. 이제 놀아주는 것도 여기까지야.</p> <p>너네들은 사고사로 강가에 빠져 죽은 사람들이 돼줘야겠어.</p>
(나레이션)	<p>강가에서 겨우 빠져나온 정태우와 최민기.</p> <p>범인이 의족인 오른 다리로 내려치자, 해미와 김찬호가 서있는 곳을 향해 바닥이 짹짹 갈라지며 파괴되기 시작한다.</p> <p>해미는 갈라지는 바닥을 피해 테이저건을 들고 범인에게 접근 시작한다.</p> <p>자신만만한지 피하지 않는 범인 진태성.</p> <p>테이저건을 발동시켜 범인의 복부 쪽으로 향하는 해미.</p> <p>씨익 웃으며 공격을 막을 준비를 하는 진태성.</p>
윤해미	(죽이지 않고 이기려면 역시 이 방법 밖에 없겠지...)
(나레이션)	<p>진태성 근방에 다가서자 갑자기 테이저건을 아래로 떨어뜨리는 해미.</p> <p>진태성의 시선은 자연스럽게 테이저건을 따라간다.</p> <p>진태성의 시선을 분산시키고 그 틈에 발차기로 일반다리인 왼쪽을 차서 중심을 무너뜨리는 데 성공한 해미.</p> <p>진태성은 중심을 잃고 바닥에 넘어진다.</p> <p>정태우와 최민기는 빠르게 달려와 도망 못 가게 범인 진태성을 제압하고</p> <p>김찬호는 의족 오른 다리에 톱톱이 마취총을 겨눈다.</p>

진태성	이거 안 놔?! 이제 너네만 처치하고 조금만 증거 처분하면 됐는데 왜? 그... 그래! 나랑 계약하자. 응?
(나레이션)	범인에게 다가서는 해미.
윤해미	(손을 뻗으며 능력을 사용하려하며)그건 사양할게요.
진태성	(쫓지마. 저 아가씨는 전처럼 절대 날 공격 못할거야.) (공격 한다고해도 고도의 능력자가 아닌 이상 못 태우는 재질이니 역전을 노리자고 ㅋㅋ.)
(나레이션)	범인 진태성의 오른쪽 의족은 빠르게 화르르 불 타가고 있었다.
진태성	안돼!! 이렇게 끝낼 수 없어! 아아아악!!!!!!

FO FI

S#7 현재, 경찰 서장 복도

(나레이션)	경찰서장실에서 나오는 해미. 퍼엉- 하고 양쪽에 서서 폭죽을 터뜨리는 정태우와 최민기. 그 가운데 초가 켜져 있는 생크림 홀케이크를 들고 있는 김찬호.
--------	--

김찬호	해미님~ 경위 되신 거 축하해요!
정태우, 최민기	축하드립니다!
윤해미	모두들 감사합니다.
최민기	아~ 해미님 월급 올라서 부럽다.
정태우	민기님은 지금 그 말 할 때입니까?
(나레이션)	다 같이 빵 터져 웃는 해미 일행들.
김찬호	하여튼 해미님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 초 붙어주세요.
(나레이션)	후- 하고 입바람을 불어 촛불을 끄고 활짝 웃는 해미.

튜토리얼 .Fin

메인 시나리오 주요 인물

윤해미 : 여, 24, 경위 [능력 : 염화] (주인공)

하론채 : 여, 25, 경위 [능력 : 염력]

히주원 : 남, 28, 경위 [능력 : 자기장]

김선우 남, 27, 경위 [능력 : 치유]

박시온 : 남, 27, 사이보그 [능력 : 기억 읽기]

타임머신이 개발된 지 한 달 후, 과거로 돌아가 현재를 바꾸려는 행동은 불법으로 제정되었다. 사람들의 운명과 선택이 바뀌며 사회 구조가 왜곡될 위험이 있기 때문이었다. 그런 불법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특수 능력을 사용할 수 있는 '시간 경찰'이라는 집단이 생겨났다. 좋은 의도라고 해도 현재를 바꾸려고 하는 건 불법인 일이었기 때문에, 오늘도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해미 순경이었다.

시간이 흐르고, 해미는 경위로 승진해 강력 범죄 수사대로 배치되었다. 오춘배 경찰서장은 해미가 순경 시절에 보여준 활약과 충성 덕분에 배치된 것이라며, 해미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과거로 돌아가 사이보그 살인 병기를 만들어 현재를 멸망시키려는 집단을 추적해 달라는 의뢰가 들어온다.

첫 강력계 사건을 맡게 된 해미는 잔뜩 긴장했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잃지 않으려고 애쓰며 새로운 동료들과 타임머신에 올라탄다. 손에 닿는 모든 것을 녹이거나 태울 수 있는 해미, 감당할 수 있는 무게 내에서 중력을 조작하는 론채, 동료들의 상처를 회복시키는 선우, 금속을 자유롭게 다루며 자기장을 활용하는 주원. 각기 다른 능력을 지닌 이들은 타임머신을 타고 10년 전의 과거로 떠나게 된다.

해미 일행은 사이보그 살인 병기를 추적하며 시민들을 학살하려는 살인 병기를 처치해 나간다.

어디선가 익숙한 목소리와 기시감이 들어 해미는 그곳으로 빠르게 향하는데 해미의 부모님이 사이보그에게 살해당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복수심에 불타올라 능력을 사용하려던 해미는 10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난 줄 알았던 해미의 남자 친구인 시온이 사이보그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해미는 망설이다가 능력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치명상을 입고 쓰러진다. 정신을 차려보니 시온은 사라졌고, 선우가 능력을 사용해 해미를 치료해주고 있었다. 시온의 행방

을 묻자, 론체가 왜인지는 모르겠지만 몇 초 동안 지켜보다가 텔레포트로 자리를 떴다고 말해주며, 독단 행동한 것에 꾸짖는다. 곧이어 주원은 이럴 거면 시간 경찰 그만두라고 온갖 비난을 퍼붓기 시작한다.

그런 해미를 걱정한 선우는 조용히 다가와, "예전에 주원도 너처럼 감정적으로 움직이다가 동료를 잃은 적이 있어. 그러니까 너무 상처받지는 마." 라며 해미를 다독여준다. 하지만 해미는 깊은 혼란에 빠져서 동료의 말을 듣지 못했다.

과거가 왜곡되어 부모님을 갑자기 잃게 된 해미는 진실을 찾으려고 시간 경찰이 됐지만 하필 그 범인이 시온이라는 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게다가 해미의 부모님은 죽이고 떠났는데 왜 자신은 죽이지 않고 자리를 떴는지 수많은 의문이 들었다. 애써 사이보그 살인 병기가 된 시온을 잘못 봤을 거라고 자기 합리화를 하며 자신을 달래기 바빴지만 그 사이보그가 진짜 시온인지 확인해 보고 싶은 마음이 한켠 커져갔다.

해미는 용기를 내서 아까 자리를 떴던 사이보그를 추적해 보고 싶다고 말하지만 싸늘한 대답만 돌아온다. 해미는 시온과 관계를 사실대로 털어놓자, 하나둘씩 해미의 행동을 이해해 주는 사람이 늘어난다. 주원은 감정적인 판단은 파멸로 이끈다고 끝까지 반대하지만, 3명끼리라도 간다는 여론이 나오자 혼자 남을 수 없어 주원도 할 수 없이 동행하게 된다.

다친 한 사이보그가 부서진 채 절뚝거리며 어디론가 향하는 모습을 우연히 목격하게 된다. 론체는 염력을 이용해서 마무리 지으려고 했지만 주원은 론체를 막아서며 본부 기지로 돌아가고 있는 거일 수 있으니 냅두자고 제안한다. 그렇게 해미 일행은 다친 사이보그를 추적하며 끝내 본부 기지를 찾아내는 것에 성공한다.

기지에 들어가자마자 침입자가 들어왔다는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하며 살인 병기 사이보그들이 해미 팀에게 몰려들기 시작한다. 전투를 치르며 생각보다 많은 수에 당황하지만 손발을 맞춰온 그들은 꽤나 좋은 팀워크를 보이며 앞으로 나아간다. 시간이 지나자 치유해주는 특수 능력을 많이 쓴 탓인지 선우는 너무 지쳐 보였다. 합의 끝에 선우는 잠시 숨어서 쉬게 하기로 하고 셋이서 나아간다.

약간 불리해졌지만 그 상황을 이겨낼 만큼 강한 그들은 차분히 살인 병기를 해쳐 나갔다. 애석하게도 체력이 다 닳은 셋은 살인 병기를 다 해치웠던 방에 들어가서 잠깐 휴식을 취한다. 그때 갑자기 론체가 통증을 호소하기 시작한다. 모르는 사이에 부상을 당한 탓인지 너무 괴로워 보였다. 해미는 상황을 빠르게 판단해 자신이 선우를 데려올 테니 주원에게 론체를 부탁하고 선우가 있는 곳으로 뛰어간다.

하지만 그 자리엔 살인 병기 사이보그가 선우의 시체를 데려갔는지 미끄러진 핏자국만 가득했다. 해미는 자신이 빨리 오지 않아서 선우를 구하지 못했다는 죄책감이 들었다. 더 빨리 알아차려서 부모님을 구했더라면 선우를 찾으러 갔더라면 지금의 결말이 달라졌을

텐데... 라며 해미는 오열한다. 동료가 죽은 건 슬픈 일이었지만 살아 있는 동료에게 돌아가야 했다.

론채와 주원이 있는 곳으로 돌아가려는데 어디선가 대화 소리가 들려서 발걸음을 그곳으로 향하게 된다. 거기엔 수많은 살인 병기를 통솔하고 있는 선우가 있었다. 해미는 그런 선우의 모습을 보고 당황하다가 사이보그의 잔해에 걸려 넘어져 선우에게 들켜버린다. 선우는 해미에게 다가와서 독에 대한 면역이 왜 있냐고 묻는다. 해미는 잊고 있던 기억이 하나 떠올랐다.

해미는 어린 시절, 자신의 염화 능력을 제어하지 못해 외할머니의 집을 불태웠다. 그 불길 속에서 외할아버지는 끝내 탈출하지 못했고, 그 사건 이후 외할머니는 해미를 죽을만큼 증오하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외할머니는 태연한 얼굴로 해미를 새로 구한 시골집으로 자주 불러들이기 시작했다. 겉으로는 "이젠 괜찮다"며 미소를 지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원망이 깔려 있었다.

어느 날, 할머니는 직접 만든 음식을 내놓으며 "이젠 우리 예전처럼 지내보자"라고 말했다. 해미는 죄책감에 아무런 의심 없이 음식을 입에 넣었고 곧 극심한 고통이 밀려왔다.

그건 신경계에 작용하는 파라블린 독이었다. 할머니는 아무렇지 않게 해미의 부모에게 전화를 걸어 "요즘 해미가 몸이 약해져서 시골에서 함께 지내면 좋을 것 같다"고 말했다.

그 말을 믿은 부모는 안심하고 해미를 맡겼고 그날 이후 해미는 고립된 채 지속적으로 독을 섭취하게 되었다. 처음엔 온몸이 뒤틀릴 만큼 고통스러웠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몸이 스스로 그 독을 분해하기 시작했다. 해미의 염화 능력이 세포 단위의 독소를 분해하며 면역체계를 강화시킨 것이다.

시간이 흐르며 해미는 파라블린 독에 완전한 내성을 가지게 되었고 살인에 실패한 할머니의 손아귀에서도 벗어나게 되었다. 충격을 심하게 받은 해미는 단기 기억상실 증에 걸리게 되고 서서히 그 일도 잊어갔다.

해미는 기억을 떠올리고 겨우 정신줄을 잡아가며 선우에게 어떻게 된거냐고 되묻는다.

선우는 론채, 주원, 그리고 해미가 부상 입을 때마다 치유와 동시에 맹독을 주입했고 길항작용이 끝나서 독만 남은 상태인데 멀쩡한 건 해미뿐이라는 사실을 알려준다. 선우는 해미를 생포해서라도 실험을 해봐야겠다고 말하며 손을 툇기자 살인병기가 된 시온이 등장한다.

시온의 몸에서 총기들이 튀어나오고 발사되기 시작한다.

해미는 이대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자신에게 향한 총이 아님을 확인하고 선우를 확인한

다. 총알을 맞고 쓰러진 것이다. 시온이 해미 쪽으로 다가오자 해미는 이제 끝났다고 생각하려던 순간 시온은 입을 열었다.

시온은 이성을 잃은 채, 과거 세계에서 학살을 해나가며 수많은 이들의 현재를 바꾸어 놓았다고 털어놓는다. 그런데 현재 시대에서 온 해미랑 눈을 마주친 순간 정신이 잠깐 맑아짐을 느끼고 정신을 차려보니 과거 세계의 해미의 부모님을 죽인 것을 깨달은 것이다. 시온은 해미의 현재를 바꿔버린 죄책감과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서워 회피를 했던거라고 사과한다.

해미는 복합적인 감정이 동시에 들어 입을 때려던 순간 총기에 맞은 선우가 치유를 마쳤는지 원상태로 돌아와서 살기어린 시선을 보낸다.

그 시선의 상대는 겨우 정신을 붙잡고 있는 주원이었다. 자기장 능력으로 인간의 감정을 없애고 선우의 명령만 따르는 '감정 억제 칩'을 제거했기 때문이었다.

비록 집안 형편은 어려웠지만 부모님의 사랑 속에서 선우는 나름대로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초등학생이 된 어느 시점부터, 사채업자들이 부모님에게 빚을 갚으라 찾아왔다. 돈은 나중에 갚으면 된다는 약속만 반복될 뿐이었다.

어느 날, 학교를 마치고 집에 돌아온 선우는 피 냄새에 숨이 막혔다.

사채업자들은 부모님의 시체를 발로 밟으며 태연히 담배를 피우고 있었다.

선우는 도망치려 했지만 공포에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한 사채업자가 선우를 향해 칼을 들자 대장으로 보이는 그가 말했다.

“아직 어리니 살려두자. 나중에 다시 찾으러 오겠다.”

그렇게 선우는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 경찰에 신고했지만 사채업자가 경찰과 목격자에게 뇌물을 준 탓인지 아무런 조치도 증언도 없었다.

선우는 폐인처럼 하루하루를 보내며 고등학생이 되었다.

어느 날, 불량해 보이는 친구가 다가와 물었다.

“왜 이렇게 조용히 지내?”

선우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돌렸지만 친구는 포기하지 않았다.

끈질기게 말을 걸던 친구 덕분에 선우는 서서히 마음을 열게 되었고 결국 부모님이 사채업자에게 살해당한 이야기까지 털어놓았다.

친구는 선우를 위로하며 말했다.

“내가 도와줄 수 있는 건 무엇이든 도와줄게.”

그것이 친구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경찰에 신고해도 그때처럼 아무도 움직이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선우는 뉴스를 보고 눈을 번뜩였다.

타임머신이 개발되고 이를 활용한 시간 경찰 양성 대학이 설립되었다는 소식이었다.

복수를 위해 그리고 타임머신에 탑승할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선우는 악착같이 공부했고 결국 시간 경찰 대학에 합격했다.

선우는 몰래 복수를 위한 장치를 개발했다. 완성된 장치를 사용해 10년 전 세계에서 실험을 시작하려는 계획이었다.

과거가 멸망하더라도 더 이전의 과거를 바꾸면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한 것이다.

선우는 공격해오는 대상의 능력을 그대로 따라해 공격한다.

염화, 염력, 자기장, 그리고 선우 고유의 능력까지 사용하자 해미 팀은 점점 불리해졌다.

시온은 살인병기를 제어할 수 있는 열쇠는 선우의 기억이라고 판단한다. 시온은 기억을 읽는 대신 수명이 깎이는 대가를 감수하고 자신이 희생하겠다고 말한다.

해미는 반대하지만 주원은 오히려 시온에게 “잘 부탁한다”고 고개를 숙였다.

선우는 사이보그를 제어하기 위해 자체 제작한 제어 구슬을 삼켰다. 누군가에 발각 되지 않기위한 선택이었다.

하지만 그 기억 속에는 없는 장면이 하나 더 있었다. 오춘배 경찰서장이 선우가 자고 있을 때 자폭 버튼을 눌러달라는 신호기를 심고있는 장면이었다.

해미가 한계에 다다르려는 순간 시온은 마지막 인사를 건넨다.

공격을 맞아가며 사이보그 몸이 망가져가지만 시온은 온 힘을 다해 벨트를 5초 동안 이 악물고 잡아당겼다. 현재 세계의 오춘배 경찰서장은 신호를 알아차리고 자폭 장치를 누르자 선우와 시온은 함께 폭발한다.

폭발이 끝나자 살인 병기는 동작을 멈추고 평범한 사이보그로 되돌아왔다.

해미는 그저 시온의 잔해 앞에 엎드려 울부짖을 수밖에 없었다.

메인 스토리 .Fin